

올 시즌 MVP는 누구일까?

30일 KBO 시상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으로 최소 인원으로만 진행

2020년 KBO리그 최고의 별은 누가 될까.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0일 오후 2시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0 신한은행 올 시즌 MVP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최우수선수(MVP)와 신인상이 공개되는 자리다. KBO는 정규시즌 종료 다음날인 11월 1일 하루 동안 MVP와 신인상 투표를 시행했다. 투표에는 2020 KBO리그를 담당한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언론사와 각 지역 언론사의 취재기자 112명이 참여했다. KBO MVP는 특정 후보 없이 규정인명 또는 규정타석을 채우거나 개인 타이틀 부문별 순위 10위 이내의 모든 선수가 대상이 됐다. 신인상 후보는 KBO 표창규정 제7조 KBO 신인상 자격 요건에 따라 2020년 입단했거나 처음 등록된 선수를 비롯해 올 시즌을 제외한 최

근 5년 이내(2015년 이후 입단 및 등록 기준)의 선수 가운데 누적 기록이 투수는 30이닝, 타자는 60타석을 넘지 않는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단, 해외 프로야구 기구에 소속되었던 선수는 신인상 후보에서 제외됐다. MVP의 경우 1위부터 5위(1위 8점, 2위 4점, 3위 3점, 4위 2점, 5위 1점)까지, 신인상은 1위부터 3위(1위 5점, 2위 3점, 3위 1점)까지 투표인단 자율로 순위를 정해 투표했다. 개인별 득표 점수를 합산해 최고 점수를 획득한 선수가 MVP와 신인상 수상자로 선정된다. 최고 점수를 받은 선수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위 표를 더 많이 받은 선수가 최종 수상자로 결정된다. MVP에 선정된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1000만 원이, 신인상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20 KBO리그와 퓨처스리그 투수 및 타자 부문별 1위 선수와 우수 심판위원회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된다. KBO 리그 부문별 1위 선수 및 우수 심판위원회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고, 퓨처스리그 부문별 1위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100만 원이 주어진다. 이번 시상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선수단과 행사 진행 관계자 등 최소 인원으로도만 진행된다. 미디어 취재와 야구 팬들의 참석은 어렵지만 SPOTV2와 SBS 스포츠, MBC 스포츠+, 네이버, 카카오 등의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시스

'태권도는 우리 삶의 활력소'

태권도진흥재단, CNN 등 글로벌 매체에 광고 송출 생활 속 활력 증진 등에 도움 된다는 내용으로 제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태권도를 통한 한국 문화 확산과 태권도 인지도 증대를 위해 글로벌 매체를 대상으로 태권도 공익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30초 분량인 이번 광고는 태권도 수련이 예의와 인성 함양, 생활 속에서 활력증진 등에 도움 된다는 내용으로 태권도를 통해 정신과 신체적 변화를 느껴라'는 주제로 제작됐다.

오는 30일까지 미주와 유럽,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송출되는 태권도 광고는 CNN과 ESPN, FOX SPORTS, EURO SPORT 등에서 시청할 수 있고 아리랑 TV를 통해서도 103개국에 송출된다. 또한, 태권도진흥재단의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에서도 태권도 광고를 이어갈 계획이다.

태국한인사범연합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고 태국에서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정성희 사범(7단)은 "해외에서 태권도가 방송으로 송출되는 것을 보고 감격했다. 이 시간에도 태권도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사범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남편과 함께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김미주 사범(5단)은 "CNN과 ESPN 등에

태권도 공익광고 촬영 현장.

서 태권도 광고를 보았다. 더 열심히 태권도를 지도하고 제자들에게 우리나라를 더 알려야 하겠다는 책임감을 느꼈다"라며 시청 소감을 말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글로벌 매체를 통한 태권도 광고는 태권도 인지도 확대와 우리나라를 알리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내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 태권도 보급과 활성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2022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 바로 알기

새만금 공공외교 포럼서 조직위, 비대면 강연 진행 대회 성공 위해 통역요원 인력 풀 구축·협력키로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23일 전북 국제교류센터에서 개최된 '제3회 새만금 공공외교 포럼'에서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비대면 강연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송하진)는 지난 23일 전북 국제교류센터에서 개최된 '제3회 새만금 공공외교 포럼'에서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비대면 강연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도민들의 글로벌 역량강화와 전북도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인지도 증대를 위한 것으로 전북 국제교류센터에서 운영중인 공공외교단 20여명이 참석했다. 문종선 대외협력본부장은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홍보영상을 시작으로 마스터스대회의 개념과 대회 유치과정, 참가선수의 특징,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등 대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북 국제교류센터 공공외교단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만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대회참가자들이 의사소통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전북 국제교류센터와 통역요원 인력 풀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전세계 생활체육인의 축제인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

회'의 다국어서비스 지원을 탄탄히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 6월 전라북도에서 개최되는 '2022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육상, 배드민턴, 수영 등 26개 종목에 걸쳐 진행되며, 생활체육을 사랑하는 만 30세 이상이라면 국가, 성별, 스포츠 지위와 무관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세계 70개국, 1만3,000여명의 생활체육인들이 대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선수뿐만 아니라 함께 방문하는 동반인을 포함하면 약 3만여명의 내·외국인이 전북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화이트삭스 vs 양키스 '꿈의 구장' 내년엔

MLB닷컴 "8월 경기 진행할 것" ... 코로나19 확산 따라 취소 가능성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미뤄졌던 메이저리그(MLB) '꿈의 구장' 경기가 2021년 팬들을 찾아간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인 MLB닷컴은 내년 8월 13일(한국시간) 아이오와주 임시 야구장에서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뉴욕 양키스의 '꿈의 구장' 경기를 진행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꿈의 구장' 경기는 1989년작 동명의 영화 개봉 30주년에 맞춰 MLB 사무국이 마련한 프로젝트다.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한 작품으로 화이트삭스의 열혈 팬이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주인공은 아이오와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지낸다. 그는 '육수수밭에 야구장을 지으면 그들이 온다'는 계시를 받고, '꿈의 구장'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곳에 조 잭슨 등 1919년 화이트삭스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찾아온다는 내용이다. 영화는 미국영화연구소 선정 100대 영화 중 39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구가했다. MLB는 영화 촬영지인 다이어스빌 육수수밭에 8000석 규모의 특별 야구장을 짓고 감동을 재연할 생각이다. 당초 이 경기는 2020시즌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연기됐다. 올해 진행할 경우 일정상 화이트삭스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맞붙기로 했었지만, 일정이 미뤄지면서 영화 속 상대인 양키스가 다시 합류하게 됐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취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뉴시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